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미켈란젤로, 『모세와 구리뱀』(c.1508~1512)
프레스코, 바티칸 시스티나 경당.

† 오늘의 전례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요한 3,14-21 참조)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구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기 거북해하고 하느님의 계명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이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제1독서 2역대 36,14-16,19-23 **제2독서** 에페 2,4-10 **복음** 요한 3,14-21

입당송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과,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화답송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영성체송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나이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 당신 이름 찬양하러 올라가나이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느님

이성억 다테오 신부 | 교구 관리국장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 가장 큰 잘못은 하느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체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마침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느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때 신앙의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신자들 중에는 하느님을 무서운 분, 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느님이 자비와 은총의 신이며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며,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신이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느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계속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느님을 떠나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는 죄를 거듭 지어 불행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당신께 돌아올 때는 언제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행에서 건져 주시는 자비하신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죄인인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용서를 청할 때마다,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다 아시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죄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자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파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것을 실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심으로써 무한히 자비하신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써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부모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인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여 당신께 돌아오면 기뻐하시며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느님께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하느님 사랑합니다.” - 아멘

믿음의 길

말씀공부

박영자 헬레나 | 범어본당

매주 월요일 아침,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선다. ‘렉시오 디비나(거룩한 독서)’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즉 성경공부를 하러 간다. 성경공부는 처음이 아니다. 횃수를 거둬해도 말씀 속에 숨은 뜻은 너무도 오묘하고 깊어 나의 좁은 가슴엔 늘 갈증이 일었다. 처음 말씀공부를 시작한 의도는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고 싶어서였다. 인류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인 동시에 신성을 지닌 그분을 확실하게 알고 싶었다. 감히 예수님을 맞대면 하고자 덤볐다. 마주 바라보고 눈을 맞추고, 느끼고, 한 가슴 가득 안아보고 싶었다. 믿음이 부족했던지, 인간으로써 가당찮은 생심이었는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 경지에 닿아 본 적이 없다. 그분과 귀일(歸一)해보지 못했다. 그것은 전 생애가 걸린 일이었다. 그분은 언제나 일정거리에서 위엄 가득한 모습으로 침묵하고 계셨다. 안타까웠지만 내 공부는 늘 목표한 곳에 닿지 못했다.

공부가 무엇인가. 학문이나 기술을 익혀 내 안에 쌓는 일이다. 공부는 교육이 시작되는 어린나로부터 길게는 서른이 넘도록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세상을 살다보니 공부란 것이 끝이 있던가. 사는 일이 곧 끝없는 공부다. 원래 공부의 본뜻은 지식을 쌓기 이전에 마음을 닦고 다스려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 했으니 쉬운 일이겠는가. 하물며 말씀공부야 더 말해 무엇하랴. 성모님과 요셉성인은 아들을 찾아 헤매다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삼십 여년을 헤맨 뒤 또 다시 말씀 곁으로 왔다. 내 공부는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무엇을 찾느냐?”(요한 1,38) 어느 날 이 성구가 가슴에 와 닿았다. 스스로 만족할 만한 증거를 찾고자 그분을 향해 끈덕진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을 내렸다. 2000년 전, 육화(肉化)되어 실재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우주만물을 주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을 인간이 인식하는 시공간에 가두려 든 것은 나의 오만이었다. 우리는 가끔 무엇을 모른 채 무언가를 찾아 헤맨다. 이미 내안에 사시는 그분을 나는 밖에서 찾고 있었다.

말씀 곁에 앉으면 일렁이는 욕망, 텅없이 뛰는 가슴이 조용히 가라앉는다. 열강하시는 신부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찌렁찌렁 울린다. 숨은 보물이라도 찾아내려는 듯 수강생들의 눈빛에도 긴장감이 돈다. 공부에 대한 열의가 뜨겁다. 중요한 대목에 줄긋기도 하고 말씀이 시사(示唆)하는 의미를 찾아 뜻을 얻기도 한다. 술한 재미난 세상사 제쳐두고 말씀공부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 와 앉은 이들, 진실로 존귀한 것(필리 3, 8)이 무엇인지 아는 이들이다. 세상 잡음 들리지 않는 공간, 진리에 맞들이며 말씀 곁에 머무는 이 시간은 내 영혼이 삶의 그물을 벗어나 마침내 자유를 맛보는 귀중한 시간이다. 비껴난 시간, 일일 피정이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김보록 신부님의 고향 벨포르에서

박준용 유스티노 신부 | 프랑스 벨포르 선교 파견



대구의 첫 본당신부 김보록 신부님의 발자취를 찾아 조환길 대주교님과 신부님들, 수녀님들, 평신도들이 함께

한 순례단이 지난 1월 신부님의 고향 벨포르에 오셨습니다. 벨포르 교구장 쇼케르 주교님께서 대주교님을 비롯하여 한 사람 한 사람씩 악수를 건네며 환영해 주셨습니다. 쇼케르 주교님은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자라신 김보록 신부님께서 한국으로 선교를 떠나 대구 교구의 초석을 마련하고 나중에 주교좌성당이 될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30여 년이 지나 이렇게 한국인 신부가 우리 교구를 위해 파견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활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뜻깊은 우리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조환길 대주교님께서는 “뜨거운 환영에 감사를 드리고, 교구 100주년을 맞아 그 동안 받았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구 본당의 첫 주임신부였던 김보록 신부님을 기억하며 특별히 벨포르 교구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하고 답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순례단이 왔다는 것이 이 지역에서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는가 하면 벨포르 시장님의 초대로 시청에서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벨포르 주교좌인 그리스도폴 성당에서 조환길 대주교님께서 주례하신 미사에는 이곳 신부님들과 신자들이 많이 참례했습니다. 계산 주교좌성당

주임이신 이상국 신부님께서 강론을 하셨는데, 김보록 신부님의 고향 교구 주교좌에서 대주교좌성당의 주임신부님이 강론을 하신다는 것이 참 의미 깊게 다가왔습니다. 100여 년 전에 김보록 신부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초대 본당신부를 지내신 그 계산동 성당이 주교좌가 되고, 그 성당의 28대 주임신부가 당신의 고향에 와서 강론을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벨포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쏘노라는 마을이 바로 김보록 신부님의 고향마을입니다. 순례단은 이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김보록 신부님의 후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대주교님의 명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불어로 강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벨포르 교구의 홈페이지와 유튜브에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무척이나 부끄러웠습니다. 김보록 신부님의 후손들이 모두 모여와서 환영 식사를 차려 주었는데 동네잔치가 따로 없었습니다. 대주교님은 우리가 가족들을 대접해야지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며 식사비용을 드리려 했고, 가족들은 죽어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나 볼 줄 알았던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김보록 신부님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단 몇 개월 말을 배우시고는 바로 사목을 하셨는데, 아마도 천재이셨던가 봅니다. 저는 아직 제대로 대화도 못하는 처지이지만 이곳 신자들의 배려와 대구대교구 신자들의 기도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김보록 신부님께서 편지 말미에 자주 적으셨던 멘트를 따라 해 봅니다. 예수님 만세! 대구의 루르드 성모님 만세! **필로**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하늘에서 칭찬받는 것

르네상스 시대에 잘 나가는 예술가들의 몸값은 대단히 비쌌습니다. 15세기 중반, 르네상스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메디치 가문이 다스리던 베네치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는 귀도 디 피에트로, 요즘 알려진 이름으로는 프라 안젤리코였습니다. 사실 이 이름은 별명인데, ‘피에졸레의 요한 수사’가 정식 이름입니다. 그러나 ‘천사 같은 요한 수사님’이라는 존경을 담은 애칭이 그대로 굳어져서 지금도 그렇게 불립니다.

요한 수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림 재주를 두고 나를 칭찬하지 말아 주

십시오. 좋은 말을 해주려거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내어놓았다고 해주십시오. 땅에서 높이 쳐 주는 것들이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라 조반니 안젤리코는 1982년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시복되었습니다. **필문**



프라 안젤리코, 『성 도미니코』

금주의 성인

3월 15일	성녀 레오크라시아(동정 순교자, 코르도바, 859년), 성 론지노(군인, 순교자, 1세기경) 성녀 루도비카 드 마리악(과부, 설립자, 1591~1660년), 성 즈카르야(교황, 752년) 성녀 마트로나(하녀, 순교자, 테살로니카, 350년), 성 클레멘스(신부, 순교자, 1751~1820년)
3월 16일	성 디오니시오(순교자, 아퀼레이아, 284년), 성 아가피토(주교, 라벤나, 4세기) 성 아브라함 카누나이아(은수자, 336년), 성녀 에우세비아(수녀원장, 아마예, 627~680년) 성 헤리베르토(대주교, 켈른, 970~1021년)
3월 17일	성 아그리콜라(주교, 샬롱쉬르손, 497~580년), 성 요셉(신약인물, 예수의 제자, 아리마태아, 1세기) 성녀 제르트루다(수녀원장, 니벨레스, 626~659년), 성 파트리치오(주교, 선교사, 아일랜드, 389~493년)
3월 18일	성 나르치소(주교, 순교자, 307년), 성 살바토르(수사, 증거자, 오르타, 1520~1567년) 성 안셀모(주교, 루카, 1036~1086년), 성 알렉산데르(주교, 순교자, 예루살렘, 251년) 성 크리스티아노(수도승, 수도원장, 주교, 아일랜드, 1186년), 성 프리그디아노(주교, 루카, 588년) 성 치릴로(주교, 교부, 교회학자, 예루살렘, 315~387년)
3월 19일	성 란도알도(신부, 선교사, 668년), 성 요셉(마리아의 남편, 1세기경) 성 제모(수도승, 증거자, 모이인무티에), 성녀 콰르탈라(순교자)
3월 20일	성 볼프란도(주교, 상스, 703년), 성 헤리베르토(수사, 더웬트워터, 687년) 성 쿠티베르토(주교, 수도승, 린디스파른, 687년), 성녀 포시나(순교자, 사마리아, 1세기경) 성녀 클라우디아(순교자, 300년)
3월 21일	성 루피치노(수도원장, 콘다트, 480년), 성녀 산투치아(과부, 1305년) 성 엔다(수도원장, 킬라니, 530년)

■ 사랑과 나눔공원 조성사업 업무추진 협약식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3월 5일(목) 오전 11시 30분 교구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군위군(군수 김영만)과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조성사업 업무추진 협약식'을 체결하셨다.

■ 교구 사제 야구단 '대구 SAINTS' 창단식



대주교님께서는 3월 6일(금) 오후 3시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에서 열린 교구 사제 야구단 '대구 SAINTS' 창단식에 참석하시어 사제 야구단 34명에게 유니폼을 전달하셨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 11주간, 2015. 3. 15. ~ 21. >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2사무 9-12장	13-16장	17-19장	20-22장	23-24장	1열왕 1-2장	3-6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 왕정제도가 생긴 이후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 다윗을 능가할 인물은 어느 누구도 없다. 하지만 그가 감당해야 했던 인간적인 슬픔과 괴로움도 성경은 그대로 전해 주고 있다. 특히 2사무 15, 1-18, 32 이 부분은 다윗이 이제까지 보여준 여유 있고 힘찬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몸을 피해가던 다윗은 사울의 친척 시므이의 욕설마저 들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이에 다윗은 “주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어 저자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런 짓을 하느냐?”하고 말할 수 있겠소?, “내 배 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이 벤아민 사람이야 오죽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행여 주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시고, 오늘 내리시는 저주를 선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소?”라고 대답한다.

➡ 다윗의 대답을 보면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이론 업적보다도 하느님께 대한 한결 같은 믿음과 그분의 자비에 대한 신뢰에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문의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하느님 아버지는 달라요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3월 16일(월) 10:30 범어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3월 19일(목) 10:00 평화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3월 16일(월) 11:00 계산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3월 21일(토) 10:00 월성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16일(월) 11:00 죽도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3월 21일(토) 11:00 성모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3월 16일(월) 11:00 한티순례자성당	프란치스칸의 후원회 미사	3월 21일(토) 15:00 프란치스카눔 경당

성소 | 피정

예수성심에로의 초대

기간: 4.5(매월 첫주일) 14:00~17:00
대상: 성소에 관심있는 여성(14~35세)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신청: (010)2649-2045

마리아 영성 피정(성체 현시, 미사, 안수)

일시: 3.18(수) 13:00~16:30
4.15(수) 13:00~16:3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4.11(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상지의 옥좌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더 행복한 부부를 위한 ME주말

329차주말: 3.27(금) 19:30~29(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부부사랑은 성가정의 첫걸음입니다

대구성령봉사회 12차 1박 2일 피정

기간: 4.25(토) 14:00~26(일) 17:00
2박3일 성령세미나

기간: 5.8(금) 13:00~10(일) 17:00
신청: (054)954-0951 / 강사: 장영자
2015대구성령대회: 5.23(토) 10:00~17:00

가족피정(주제: 우리가족에게 오신 하느님)

1차: 3.28(토)~29(일)
2차: 4.11(토)~12(일)
장소: 성주 무학연수원
대상: 초등3 이상 자녀를 둔 가족
문의: (054)932-0620 / (010)4501-7866

오순절평화의마를 철야기도회

시간매주: 화요일 23:00~익일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앞 20:30
수성구청앞 21:00
문의: 차량 김명옥, (010)5529-3186

제1차 영성 무료 치유 대피정

기간: 3.20(금) 22:00~22(일) 16:00
준비물: 세면, 필기, 미사도구
문의: 부산교구 성령봉사회 영성의 집
(055)382-9465~6 / 전화접수

젊은이 성경 통독 피정(지혜서)

기간: 3.27(금) 20:00~28(토) 13:00
장소: 수원성빈센트드블자비회수녀회
대상: 만 35세 미만 미혼 여성 / 선착순
문의: (010)8833-8107 / 회비: 1만 원

성심교육관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3.20(금) 23:00~22(일) 15:00
장소: 성심교육관(용인)
출발: 시민회관 16:00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이카타리나, (010)4515-1114

꽃동네 사순 대침묵 특별 피정

기간: 3.26(목)~29(일)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내용: 미사, 강의, 고해성사, 면담
피정비: 16만 원(개인독방피정)
문의: (043)879-8500

꽃들에게 희망을(피정)

기간: 3.28(토)~29(토), 요셉수도원
대상: 35세 미만의 미혼 여성
문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
(010)9319-1690

교육 | 모집

명사특강-이선혜 부모교육 전문강사

일시: 3.25(수) 18:30~20:00
장소: 바오로딸서원(시내 공평동)
내용: 관계, 소통, 대화 기법
신청: (010)2658-5185, 회비없음

이시우 신경외과
http://적주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안경원
리 네 드
T. 427-8070
동성로 금곡삼계탕 맞은편
안경 트렌드의 중심
원장 옥정희 (프란체스카)

대구연세안과
· 아이라식 · 안내렌즈
· 노안수술 · 백내장수술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장 박충원(소시모)
현. 연세대의대교수 원장 박충원(소시모)
☎ 053)626-8881~5

목조전원주택 전문시공
21C HOUSING
21C 주택산업
이정수 마티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해동 새마을금고 옆
신매역 3번 출구 (천주성심병원 방향)
김 경 일 (아네스)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반역기(바오로) 011-514-3855

미소인치과
원장 이 종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미소인
www.misoindental.com 미소인

행사 | 모임

렉시오디비나와 함께하는 2차 신약성경 통독 파정

기간: 4.25(토) 13:30~26(일) 17:00
장소: 베네딕도영성관, 회비: 5만 원
신청: 4.12(일)까지, cafe.daum.net/biap
입금: 대구 508-11-836412-0(한상숙)
주관: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가톨릭 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

일시: 3.22(일) 19:30, 수성아트피아
예매 문의: (010)8996-8675

교육 | 모집

발달장애아이를 위한 부모교육

일시: 3.19~6.25(15주, 매주 목)
19:00~21:00 / 참가비: 10만 원
장소: 성토마스 성당 2층 강당
대상: 발달장애부모 및 관심있는 자
문의: (010)4523-0825

지성인을 위한 토요신앙특강

일시: 3.21(토) 10:00, 남산동신학대학
주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강사: 장재봉(스테파노)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관덕정 주관 4월 성지순례

일자: 4.19(일), 대전교구 솔피성지

신청: 3.18(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 원(중식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대구가톨릭스카우트 대원 모집

신청기간: 3.8(일)~31(화)
참조: 본당게시판 포스터, 카탈로그
대상: 초등 3학년~고교 2학년
문의: 황창현 사무국장, (010)2810-8661
검색: 가톨릭스카우트대구지구연합회

가톨릭 사진가회 사진교실

초급오전: 4.10(금) 10:00
중급오전: 4.10(금) 11:00
초급저녁: 4.10(금) 19:00
중급저녁: 4.10(금) 20:00
문의: 254-6115 / 강사: 김영록(바오로)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수강생 모집

통기타, 플룻, 우쿨렐레, 바이올린,
오카리나, 초코아트, POP, 가야금
토피어링, 백세건강, EBS주산수리셈
문의: 476-6211(지하철1호선 교대역)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발성가곡성가/고려수치침: 4.7(화) 13:30
미술심리상담사2급: 4.16(목) 10:00
제대꽃꽃이/꽃꽃아: 4.3(금) 11:00
건강태극권: 4.3(금) 12:30
문의 및 신청: 254-6115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3.24~6.23(주1회) 9:30~17:30

자격요건: 전문대이상 졸업자

문의: 대구가톨릭상담원교육센터,
253-1401

새빛학교 기초영어한문반 모집

영어교실: 매주 화, 목13:00(주 2회)
한문교실: 매주 화 15:00(주 1회)
문의: 교무실, 476-3100(1호선교대역)

결식아동돕기 7080법밴드 연주자 모집

분야: 키보드(피아노), 색소폰
문의: (010)9577-7819 / (010)3810-5599

17회 필리핀 영어연수 및 해외봉사

대학생: 3차 3.28(8주이상)
부모동반연수: 매월말 출발(4주이상)
특징: 영어연수, 해외봉사, 체험활동
캐나다, 호주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채용 | 안내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427-4400(면접 후 채용)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황강무(미카엘), 신기영

문의: 253-9550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메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전통한복의 명가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 혼수/예단/수위 · 한산모시 전문점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중구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상가 115호

☎ (053)421-2827/421-2828
이명자(세실리아), 강윤정(아네스)

인공신장실
야간투석

서부영남내과

영남리과외대교수 원장 권영진 (안드레아)
☎ 053)656-7533

엠마우스를 성지와 함께

● 이스라엘, 요르단 ● 일본

12박 13일 3박 4일
- 4/7 출발 확정 - 4/21 출발 확정
대한항공 대한항공

T. (053)253-3399
☎ (주)성지여행 조 철 래(유스티노)
홍 미 최(안젤라)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프로보청기

미국·덴마크 보청기(세계1위~5위) 렌탈·판매
김은연(세실리아)

☎ 010-6481-8848
☎ 053)421-8588
동인로타리에서 경대병원방향 10m
(세기보청기 본사 옆)

발아플랜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시간신경통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